



수려한 수목들로 가득한 과천자이 '-2도가든'.

**아파트의 미학(美學) <36> 과천 자이**

뛰어난 입지조건으로 '준 강남'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과천은 3기신도시 청약과 함께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하나 둘 씩 포장을 뜯으며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달 입주를 시작한 GS 건설 '과천자이'의 가을 풍경은 신축 아파트가 많은 과천에서도 '군계 일학(群鷄一鶴)'이므로 꼽힌다.

# 형형색색 수목들과 근엄한 수경시설 사계절 고스란히 담아내는 내 집 앞마당

'커다란 물은 담다' 단지컨셉트 답게 계단형 분수·연못 등 수경시설 다채  
엘리시안 가든 내 수경시설 석가산 관악산 형상화로 과천 모습 담아내  
단풍·신나무 등 다채로운 수목들과 산책로 역사들로 늦가을 정취 만끽

**◆11월 입주 시작, 수경시설 다수 배치**

지난 16일 방문한 과천자이는 이제 막 새 단장을 마쳤다. 단지 내부를 탐방하며 입주 환영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이삿짐을 실은 트럭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새 아파트답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다.

입구에는 '엔트리프라자'라는 이름의 수경 시설이 있었다. 이곳은 계단형 분수인 '케스케이드'로 장식돼 단지를 출입하는 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과천자이는 총 27동 2099가구 규모로 구성돼 단지 내부가 넓다. 조경도 공간을 넉넉하게 활용해 큼직하게 조성됐다. 현장에서 만난 강철현 과천자이 조경팀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 조경은 '커다란 물은 담다'라는 컨셉트로 설계됐다. 그의 설명처럼 과천자이에는 유독 수경 시설이 많았다. 동절기를 앞둔 현재는 물을 빼놓은 상태지만 내년 봄에 물을 다시 채워 놓으면 과천자이 조경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강철현 조경팀장은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과천에서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조경에 사계절을 담아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조성했다"고 했다.

그의 설명을 들은 뒤 단지 내 정원과 휴게공간을 살폈다. 단풍나무, 느티나무, 신나무, 기동나무 등이 식재됐다. 가로수로는 이팝나무를 주로 사용했다. 형형색색으로 물든 수목들과 산책로에 심어진 역사가 늦가을의 분위기를 전

달하며 입주민들을 환영했다.

**◆엘리시안 가든, -2도가든 등 친환경 설계**

단지 중앙에는 대규모 수경시설이 있는 '엘리시안 가든'이 조성됐다. 계단을 이용해 정원 내 설치된 실내 휴게공간 '티하우스' 옥상에 올라 아파트 내부 조경시설을 살폈다. 진경산 수화에서 보았을 법한 석가산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강 조경팀장에 따르면 엘리시안 가든 수경 시설에 배치된 석가산은 인근에 있는 관악산을 형상화해 양재천이 흐르는 과천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연못에 설치된 유리관 형태의 조형물 '포레스트 오브 컬러즈(forest of colors)'는 밤이 되면 불이 켜져 입주민들에게 과천 자이 내 최고의 야경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수경 시설 옆에 선베드가 설치된 것도 이색적이다.

'클라우드 에코가든'은 엘리시안가든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나무로 만든 무지개다리가 설치돼 제법 멋지게 꾸며져 입주기간이 끝나면 단지 내 최고의 산책로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화장치로 미스트분수를 설치한 '-2도 가든'도 인상적이었다. 이 정원은 기후 변화에 대비해 온도를 낮춰보자는 취지로 설계됐다.

이밖에 생활편의시설로는 LED 다목적 체육관과 실내 스크린 야구장과 테니스연습장이 있다. 맘스스테이션이 지하2층, 게스트하우스는 27동 최상층에 위치했다. 지하주차장 층고는 3m까지 높여 택배차, 캠핑카, 학원차량, 재활용수거차량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한편 과천자이는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해 만들었다.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과천IC가 단지 밑에 위치했으며 지하철 4호선 과천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인근에는 과천시청 소년수련관, 과천문화원, 문원체육공원이 있다. 근처 교육시설로는 청계초등학교, 과천문원중학교, 과천고등학교가 있다.

/글·사진=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① 경기도 '과천자이' 엘리시안 가든. 관악산을 형상화한 석가산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② 티하우스 전경. 생태연못 내 유리관 형태의 조형물 '포레스트 오브 컬러즈(forest of colors)'가 설치됐다.  
③ 선베드가 설치된 과천자이 야외 휴게시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몸 안좋아" 권오수, 구속 후 검찰 조사 불응 /사진 뉴시스  
▲ 고령 돌파감염·미접종 확산...2주내 4천명 갈수도

▲ 당국 "백신접종 후 10대 사망신고 첫 사례, 접종과 인과성 없어"  
▲ SK바사, AZ 코로나 백신 생산 계약 연말 종료 전망



▲ 檢,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첫 조사... '대장동 키맨들' 출소환  
▲ 요소수 신규 제조·수입 신청 78건 처리... 총 1004만 /사진 뉴시스